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RCHER'S VOICE

가제 : 아처의 음성

저자 : Mia Sheridan

출판사: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발행일: 2014년 1월 2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 18개국 해외 판권 계약, 영화 판권 계약이 체결된 로맨틱 소설**

*** New York Times, USA Today, Wall street 베스트셀러 저자의 소설, 7천여 건의 독자 리뷰**

마음 깊은 곳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혼자 아무리 애써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다. 아픈 시간을 딛고 앞을 보는 일, 지나온 길이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상처를 어루만져준다.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저자는 키타우로스로 상징되는 별자리인 궁수자리에 관한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두 사람의 운명 같은 만남과 사랑을 현대적인 로맨스 소설로 완성했다. 다양한 독자들의 서평과 평점을 볼 수 있는 도서리뷰 전문 사이트 <굿리즈(Goodreads)>에 7천여 건에 가까운 서평이 등록되고 평균 4.48점의 높은 평점을 받으며 큰 화제를 낳은 작품으로, 영화 판권도 계약되어 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화 소식이 전해진 뒤 여성 독자들의 심장을 사로잡은 남자 주인공 아처 헤일과 맑고 씩씩한 여자 주인공 브리 프레스캇에 어떤 배우가 어울릴지 온라인 상에서 독자들의 제안이 쏟아지며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다.

메인 주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스물세 살 청년, 아처 헤일은 병어리다. 가족의 어두운 비밀은 일곱 살 어린 아처에게 감당하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었고 큰 충격을 받은 아처는 말을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죽어도 잊지 못할 그날 밤의 끔찍한 사고는 아처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저 세상으로 데려가 버렸지만, 누가 저지른 짓인지, 그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는 베일에 싸인 채 덮여버렸다.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는 어린 아처였지만, 그날 이후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처를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아처는 부모처럼 자신을 돌봐주던 삼촌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늘 혼자 지냈다. 동네 사람들은 아처를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단정지어버리고 말조차 섞으려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자기 속에 숨어버린 채 되도록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졌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시선으로 봐주는 외지 사람이 등장하면서, 홀로 틀어박혀 살던 아처의 삶에 조용히 희망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브리 역시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 어디서든 마음 편하게, 조용히 살고 싶은 것이 브리의 유일하고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과거의 악몽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꿈쩍했던 어느 날 밤의 기억은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브리를 놔주지 않았다. 쉼 없는 고통에 시달리던 브리는 어느 날, 애완견과 간단한 짐만 챙겨서 무작정 차를 몰고 고향인 신시네티를 떠나 메인 주로 향한다. 뉴욕의 인터넷 카페에서 한 시간여 만에 찾아낸 그곳 펠리온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틀을 운전해서 당도한 그곳이 제발 마지막 정착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허름한 집부터 구하고 거의 바닥이 난 잔고 때문에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브리는 얼마 후 아처와 맞닥뜨린다. 아무 말없이 다가와 브리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준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눈을 가진 멋진 사람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좋게 보지 않았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대놓고 무시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브리는 잠깐이지만 자신이 보고, 느낀 아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호숫가 근처에 사는 아처를 보기 위해 매일 수영을 하러 가기 시작한 브리는 조금씩 그와 친구가 됐다. 아처 역시 남들처럼 자신을 보지 않는 브리가 신기하기도 하고, 어느새 그녀가 수영하러 오는 시각을 기다리게 되었다. 사춘 중에 청각장애인이 있어서 수화를 할 줄 아는 브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처와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사랑을 시작한 아처와 브리는 다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에 괴로워하면서도 상대가 바꾸어놓은 자신의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긴다. 슬픈 운명과 절대 씻어낼 수 없을 것만 같던 기억까지 씻어내는 사랑의 힘을 감동적인 변화와 두 연인 사이에서 오가는 뜨거운 감정의 교류를 통해 흡입력 있게 그려낸 로맨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미아 셰리던(Mia Sheridan)이 쓴 『Kyland』 『Stinger』 등 로맨스 소설은 뉴욕타임스 등 여러 매체의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신시네티에 살면서 서로 운명처럼 만난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제목 : CLOSE TO HOME

가제 : 가까운 사람

저자 : Cara Hunter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8년 1월

분량 : -

장르 : 소설



*** 미국, 독일, 중국, 노르웨이, 스웨덴 판권 계약, 3부작 범죄소설의 첫 번째**

*** 옥스포드를 무대로 불행한 가정에서 일어난 여덟 살 소녀의 실종사건을 다룬 범죄 시리즈 첫 편**

*** 사라진 아이, 수상한 가족, 하나씩 드러나는 비밀만큼 멀리 달아나는 아이의 행방**

파티가 한창이던 시각, 집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던 여덟 살짜리 소녀가 실종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각은 새벽 두 시. 아직 파티의 분위기가 남아 있는 집에서 마주한 아이의 부모는 어딘가 묘한 구석이 있었다. 실종 아동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간 폴리 형사는 오랜 경험과 개인적인 사연 탓에 이 사건의 심상치 않은 면을 단번에 알아챈다. 역사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미스터리 소설들로 유명한 작가 린 셰퍼드(Lynn Shepherd)가 카라 헌터라는 필명으로 새롭게 선보인 3부작 범죄소설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CLOSE TO HOME』은 미국, 영국에 이어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중국에서도 판권 계약이 체결됐다. 옥스포드를 배경으로 마지막 장을 읽을 때까지 등장인물 중 누구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긴박감이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으로, 2018년 1월과 7월, 그 이듬해까지 세 권이 차례로 출판될 예정이다.

아주 불편한 진실이지만, 실종된 어린이 열 명 중 아홉 명은 가까운 사람의 손에 납치된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 아이가 사는 마을 어딘가에서 자주 마주치던 인물이 범인이다. 7월의 어느 여름 새벽, 출동 연락을 받고 데이지의 집으로 향하면서 폴리 형사는 그 사실을 되새긴다. 그도 믿고 싶지 않지만 지난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이 그랬다. 여덟 살 데이지는 폴리 형사가 때문에 들어서기 몇 시간 전, 학교 친구들과 그 부모들이 모인 파티가 떠들썩할 때 사라졌다. 상당히 넓은 집 곳곳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눈에 띄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잘 정리된 장식품들, 비싼 가구가 들어선 거실에 데이지의 아빠 베리 메이슨과 아이의 엄마 세론, 그리고 데이지보다 두 살 많은 오빠 레오가 기다리고 있었다. 폴리 형사는 실종 사건을 전담해온 덕에 사라진 아이의 부모와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가족은 어딘가 달랐다. 분노와 공포, 죄책감, 불안감, 현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억지스러운 자기 부정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얼굴에 가득 서려있게 마련인데 베리와 세론은 둘 다 그렇지 않았다. 도무지 감정을 읽을 수 없이 로봇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던 아이 아버지는 형사가 질문을 던져도 고개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귀가 안 들리나, 폴리 형사가 의아해하려던 찰나, 베리는 갑자기

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폴리 형사는 이 가정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도 불행한 가정의 일원이었기에, 그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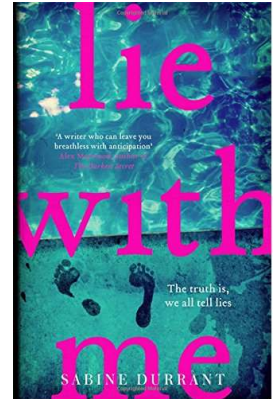
이름처럼 데이지 꽃과 같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던 데이지는 밤 열 시경, 불꽃놀이를 할 때쯤 정원에서 발견된 것을 끝으로 사라졌다. 손님들 차량이 드나드느라 저택 측면의 문은 계속 열려 있는 상태였다. 자기 몸보다 눈에 띄게 큰 옷을 입고 앉아 있던 데이지의 오빠 레오는 실종 당시 아이의 옷차림을 묻는 폴리 형사에게 3일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데이지의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걸치고 함박웃음을 짓는 예쁜 소녀의 모습. 그 동영상에 담긴 모습처럼 하루 종일 즐거웠다는 데이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야기는 폴리 형사의 지나온 삶과 불행했던 결혼생활, 최근에 그에게 닥친 시련과 데이지의 사건을 절묘하게 결합시켜 이 불안한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서히 드러냈다. 외모를 치장하는 데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과하게 신경 쓰는 데이지의 엄마, 시종일관 차갑고 방어적인 데이지의 아빠, 자기 세계에 갇힌 아이 같은 데이지의 오빠까지, 폴리 형사는 식구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이들이 감추려던 비밀과 의혹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들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데이지의 행방은 더 미궁으로 빠져만 간다.

필명을 사용했지만 강렬한 표현과 다양한 인물의 시선, 이미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확 비틀어서 전혀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반전 등 작가 특유의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 있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린 셰퍼드(Lynn Shepherd)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정통 영국 소설, 뛰어난 탐정소설, ‘문학적인 범죄소설’을 쓰는 것을 목표로 삼고 『A Treacherous Likeness』, 『Charles Maddox』 시리즈, 『The Solitary House』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제목 : LIE WITH ME
가제 : 내 입에서 나온 거짓말
저자 : Sabine Durrant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16년 7월 28일
분량 : 304 쪽
장르 : 소설



- * 전자책으로 4,400부, 양장본으로 15,000부 이상 판매된 화제작
- * “루스 렌델,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작품에 버금가는 심리 스릴러” – 가디언(Guardian)
- * “『나를 찾아봐』, 『걸 온 더 트레인』 이후 책 읽기를 쉬었다면 이 책이 그 틈을 메워줄 것이다” – 그라지아(Grazia)

의도하지 않았는데 덜컥 거짓말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찾아오고, 그 건 마흔두 살 폴 모리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만난 친구에게 악의 없이 건넨 거짓말, 조금 부풀린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날카로운 듯이 되어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풀은 연쇄적인 사건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간다. 올해 7월,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되어 4,400부가 넘게 판매된 이 스릴러 소설은 같은 달 말일에 양장본으로 출간된 후 영국 전역과 온라인에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이 실시됐다.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는 진실(The Truth is, We all Tell Lies)”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소셜미디어와 워터스톤스 서점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펼쳐진 후 독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1만 5,000부 이상이 판매됐다. 「가디언」이 “루스 렌델(Ruth Rendell), 패트리샤 하이스미스(Patricia Highsmith)에 맞먹는 심리 스릴러”라고 극찬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를 무대로, 반전을 거듭하며 거짓말의 파괴적인 결과를 통렬하게 보여준다.

폴 모리스가 앤소니를 우연히 만난 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유난히 기운이 없고 축 처진 날이었다. 20대 초반에 발표한 소설로 엄청난 성공과 인기를 경험했던 시간들은 찰나처럼 지나가버리고 이제 마흔 두 살이 된 그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떠올렸다. 젊은 날의 영광을 되찾아 줄 후속작은 20년가량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최근에 쓴 소설도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았다. 스물네 살 어린 애인 폴리는 정치에 관심 많은 블로거와 눈이 맞아 그를 떠나버렸고, 지난 6년간 월세 걱정 없이 ‘집’이라 부르며 놀러 살았던 블룸즈버리의 아파트에서 아침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모아놓은 돈은커녕 밤에 몸을 누일 곳도 없어진 바람에 마흔 넘어서 홀로 지내는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할 판국이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니, 왠지 더 서글펄다. 캠브리지로 졸업하고 수재 소리를 들으며 대단한 소설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20여 년 뒤 이런 처지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빗속을 거닐던 폴은 중고도서가 쌓인 서

점에 들어서고, 그곳에서 큰 책장 너머에 서 있던 대학 동기 앤소니 홉킨스를 만난다. 몇 년 전 그리스에 휴가를 갔을 때도 한 번 마주쳤는데, 이렇데 다시 또 우연히 만난 것이다. 서로의 근황을 묻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폴은 왠지 옛 친구에게 자신의 초라한 실상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심정에 사로잡힌다. 거짓말은 그렇게 시작됐다.

자신이 아직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던 폴은 비참한 진실 대신 그럴듯한 거짓말로 꾸며진 삶의 이야기를 자신의 것처럼 앤소니에게 들려준다. 두 사람은 또 보자며 연락처를 주고 받고, 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앤소니는 그렇지 않았다. 몇 주 뒤, 정말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그는 폴에게 작은 파티를 열 생각이니 놀러 오라고 초대하는데, 폴로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파티가 열린 날, 폴은 그곳에서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미망인 앨리스를 만난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고, 앨리스는 그리스에 매년 휴가를 가서 머무는 집이 한 채 있는데 얼마 후 친구들과 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인사치레로 같이 가자는 앨리스의 말을 폴은 흘려 듣지 않았다. 그 날 이후 앨리스와 연락을 하기 시작한 폴은 그리스 여행에 동참하자는 앨리스의 정식 초대를 기어이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집 구할 돈도 없는 처지에 해외여행을 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폴은 앤소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앨리스에게도 돌려댄 거짓말을 보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마침내 그리스에서 만난 앨리스는 친구들과 매년 해 온 뜻 깊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10년 전, 열네 살의 나이로 실종된 자스민이라는 소녀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나눠주고 목격자를 찾는 일이었다. 그 해에도 앨리스는 그리스에 머물고 있었는데, 소녀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발벗고 나서서 돕기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째 이어진 것이다. 내년이면 지역 개별로 자스민의 부모님이 사는 동네가 허물어질 예정이라 이 캠페인도 올해가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폴 모리스도 자스민이 사라진 해에 그리스에 머물렀다는 것, 그가 런던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만나러 그리스로 찾아온 그가 어떤 경로로 그곳에 왔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폴의 거짓말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10년 전, 그리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차곡차곡 쌓인 거짓은 강력한 덩어리가 되어 폴의 발목을 붙들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사빈 두란트(Sabine Durrant)는 가디언 편집자, 선데이 타임스 문학 편집자로 일했다. 『Having It and Eating It』, 『The Great Indoors』와 스릴러 소설 『Under Your Skin』, 『Remember Me This Way』, YA 소설 『Cross Your Heart』 등을 발표했다.

제목 : TO THE BRIGHT EDGE OF THE WORLD

가제 : 세상 끝 눈부신 빛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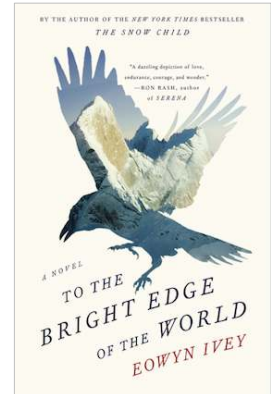
저자 : Eowyn Ivey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6년 8월 2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소설



★ 아마존 2016년 8월의 도서 선정, 신화와 로맨스, 모험을 절묘하게 엮은 소설

★ 데뷔작이 30만 부 이상 판매되며 풀리처 상 결선에 오른 작가의 두 번째 알래스카 이야기

★ “설득력 있고 생생한 소설” – 「가디언」

1920년대 알래스카 울버린 강을 배경으로 한 데뷔소설 『The Snow Child』로 풀리처 상 결선후보에 올랐던 작가 에오윈 아이비가 같은 지역을 무대로, 조금 더 먼 과거인 1800년대 후반에 그 신비의 땅을 찾은 미국 탐사대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소설로 찾아왔다. 첫 소설이 3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한 작가의 저력이 여지없이 발휘된 신작은 문명의 경계를 넘어서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첫 발을 들인 미군 탐사대와, 병영에 남아 홀로 남편을 기다리며 그 시대 여성에게 허락된 자유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아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사람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경선 안에 포함된 낯선 땅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며 신화와 로맨스, 모험의 요소를 절묘하게 엮었다.

1860년대, 애리조나에서 아파치족 인디언과의 전쟁에 참가하여 험악한 공을 세운 알렌 포레스터 중령은 25년 뒤 새로운 임무를 위해 알래스카로 향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두려움 없이 일군 성과가 지금의 그를 만든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알렌도 많이 달라졌다. 성격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겼다. 다 그가 목숨 걸고 지키고픈 사랑하는 아내, 소피를 만나서 생긴 변화였다.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게 되리라곤 생각해본 적도 없는 그에게 소피는 세상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런 아내가 임신까지 한 상황에, 그 누구도 안전하게 다녀온 적이 없는 알래스카 북부에 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새로 미국의 영토가 되었지만 미국인들은 아무도 살아서 돌아온 적이 없는 곳. 어마어마한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그 베일에 쌓인 곳을 둘러보고, 지도를 작성하고, 원주민들과 친분을 쌓고 향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파악하고 오는 것이 알렌 중령이 이끄는 팀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그는 홀로 지내야 할 소피를 위해 최대한 빨리 이 일을 해내고 돌아오리라 다짐하며 알래스카 남부, 울버린 강으로 향했다. 영리하기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프루트와 광부의 아들답게 역세고 저돌적인 킬먼이 그를 보필하는 가운데 가이드로 나선 아메리카 인디언 여성과 함께 일행은 아직 누구도 성공한 적 없는

첫 탐사를 시작했다.

원래 여행과 모험을 좋아하는 열정적인 여성인 소피는 좁은 병영 안에서만 지내는 것에 금세 지쳐버렸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남편 알렌이 부러울 지경이었다. 맨날 보는 다른 군인 아내들과 남의 소문이나 키득거리며 차를 마시는 생활이 지긋지긋해진 소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다. 사진이라는 신기한 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것이다. 카메라 다루는 법을 배운 소피는 주변 숲을 누비며 야생동물들과 새 동지 사진을 촬영한다. 여자가 바깥을 그것도 이상한 기계를 들고 돌아다니니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급기야 소피가 작은 암실까지 마련하자 고깝게 보지 않는 시선들은 한층 더 노골적인 비난의 눈길로 바뀐다.

소설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 알렌과 소피의 자손이 두 사람이 남긴 일기장과 사진, 메모를 알래스카의 한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문 기사와 여러 사람 사이에 오간 편지가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뒷받침하고, 사람의 발길이 닿기 전 알래스카가 현재의 모습과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는지 생생하게 전해진다. 탐사대로 함께 떠난 인디언 가이드는 점점 더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알렌은 강 너머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초현실적인 일들을 경험한다.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이 나무와 연결된 모습, 인간과 야생동물의 모호한 경계, 산 자와 죽은 자가 뒤엉켜 사는 삶은 굶주림과 온갖 위험에 노출된 일행의 정신을 썩 빼놓기에 충분했다. 이성적인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목숨을 좌우한다는 강한 기운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밴쿠버에서 씩씩하게 지내던 소피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시련이 찾아오고, 담대함과 세상에 대한 믿음은 혹독한 시험을 당한다.

각기 다른 곳에서 자신만의 도전을 벌이며 새로운 세상을 배워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들려 주면서 세상의 끝,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빛을 찾아가는 용기와 모험을 그린 소설이다. 아마존(Amazon) 2016년 8월의 도서로 선정됐다.

<저자 소개>

에오윈 아이비(Eowyn Ivey)는 데뷔소설 『The Snow Child』로 2012년 ‘내셔널 북 어워드’에서 ‘올해의 해외 작가상’을 수상하고 2013년 풀리처상 결선에 올랐다. 현재 알래스카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WASTING TIME ON THE INTERNET

가제 : 인터넷 세상 마음껏 방황하라

저자 : Kenneth Goldsmith

출판사: Harper Perennial

발행일: 2016년 8월 2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인터넷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에 대한 흥미로운 논픽션

★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다루면서도 초점을 잃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한 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Publishers Weekly)

★ “인터넷이 얼마나 무수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대 예술의 탄탄한 토대가 되었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현대 미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책” - 『Reality Hunger』의 저자 데이빗 실드

정치나 대통령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 신문을 펼쳐 놓고 관련된 기사를 읽는 건 시간 낭비일까? 기사 하나를 읽고, 그 기사에 관한 평론가의 긴 글을 연달아 읽느라 수십 분을 보내고, 그 사이사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잠깐 훑어보는 건 현대인이 집중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일까? 그렇게 한동안 정치 기사를 본 뒤, 페이스북에서 한 유명 가수가 자신이 노래를 처음 부르기 시작한 계기를 재미있게 쓴 글을 읽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먼 옛날 뉴욕 한복판에 실제로 설치된 적이 있는 전투함 사진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그 규모와 세밀한 재현에 감탄하는 것, 모두 우리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하는 흔한 일들이다. 사람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명된 후 더 이상 책을 읽거나,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거나, 좀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좋아하는 동물의 동영상을 보거나, 이 사이트에서 저 사이트로, 다시 다른 곳으로 클릭하며 돌아다니느라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는 죄책감을 느낀다. 시인이자 개념예술가인 저자는 이 모든 자기비판과 인터넷 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반대하며,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하고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인터넷에서 시간 낭비하기”라는 제목의 강의를 개설했다. ‘문학작품이 만들어지는 본질적인 과정인 아무 목적 없는 정신적 방황의 신비한 힘을 되살리는 것’이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인 만큼, ‘산만함, 멀티태스킹, 목적 없이 생각이 떠 다니게 두는 것’이 수업의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뉴욕커, 워싱턴포스트, 타임, CNN, 텔레그래프 등 유수의 언론이 이 별난 수업의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하고 충격과 호기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무엇이 저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생각,

인터넷의 여러 가지 악영향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할까? 저자는 15명 정원에 300명의 학생이 몰려든 그 화제의 수업에서 직접 보여주려고 한 것, 인터넷이 인간의 더욱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고 그 어느 때보다 사교적이고, 창의적이고, 훨씬 더 생산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수십 년에 걸쳐 무엇이 예술이고, 또 무엇이 예술이 아닌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인터넷이 얼마나 무수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대 예술의 탄탄한 토대가 되었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영향이 현대 미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인터넷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욱 두텁게 키웠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와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다소 파격적인 이 새로운 생각을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날카롭고 명료하게 풀어서 설명한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생활방식이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고, 그 결과 뿌리 깊은 오해와 달리 더 많이 협력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글을 쓰게 되었으며 집중력과 무의식적인 생각의 흐름이 활성화되어 창의력을 더욱 깊이 발휘하게 되었다는 참신한 주장에 귀 기울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머리말. 마음 놓고 길을 잃어봅시다

1장. 소셜 네트워크

2장. 좀비

3장. 열어본 페이지 목록은 우리의 회고록

4장. 기록 보관은 새로운 민속예술

5장. 꿈 기계와 영겁의 날

6장. 사진 촬영이 내 존재의 이유

7장. 어질어질, 비틀비틀

8장. 작가는 밈(meme) 기계

맺음말. 혁신도 빠르게 변한다

부록. 인터넷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101가지 방법

<저자 소개>

케네스 골드스미스(Kenneth Goldsmith)는 개념예술가이자 ‘근대미술관’의 첫 번째 계관시인이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저서로는 『Seven American Deaths and Disasters』와 에세이 『Uncreative Writing』 등이 있다.

제목 : THE EURO AND THE BATTLE OF IDEAS

가제 : 유로화에 관한 동상이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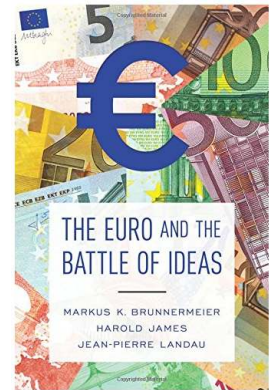
저자 : Markus K. Brunnermeier 외 2인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8월 30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경제



- * 유로존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 유럽 각국의 경제적 갈등에 관한 역사적인 분석
- * “유로화가 일으킨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을 현재까지 가장 우수하게 분석한 중요한 책” – 전 미국 재무부 장관 로런스 서머스
- * “저자가 밝힌 전략이 유럽에서 실제로 행해진다면 많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 현 독일 재무 장관 볼프강 쇼이레블

유럽대륙의 화폐통합, 이 거대한 목표의 결과물인 유로화가 최근 들어 유럽의 심각한 경제난을 일으킨 주범으로 자주 거론된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 여러 국가들이 경제문제에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화폐로 이루어진 연합체제가 과연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경제학과 외교분야에 정통한 세 명의 저자는 유로존을 처음 탄생시킨 국가들 사이에 철학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현재 불거진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유럽위원회를 유럽연합으로 재탄생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엄격한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독일과 유동성 있는 틀의 하나로 보는 프랑스의 근본적인 차이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유로화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진짜 원인을 규명하고, 자칫 봉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갈등과 회원국간의 극심한 차이를 통합으로 이끌고 유럽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유로화의 위기가 불거진 후, 유럽 대륙 곳곳에서는 해결 방안에 관한 무수한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고 권력의 판도도 크게 바뀌었다. 2009년 말, 유럽 내에서는 경제규모가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그리스에서 재정 문제가 터지고, 무엇이 올바른 경제철학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표면 아래에서 끓고 있던 갈등이 분출되면서 시작된 아이디어 전쟁이다. 독일을 주축으로 한 유럽의 북부,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남부의 생각이 격렬히 대립하고 핀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런 충돌은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투표라는 역사적인 조치로 이어졌다. 세 저자는 이 책에서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 뿌리를 찾아본다. 언뜻 보기에는 두 국가가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이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철학을 형성시킨 역사적, 지적, 문화적인 근원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좁은 시각에서 나온 생각인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협소한 분석이 유럽의 경제를 뒤흔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경제적인 전통과 여러 학파가 등장하게 된 나뭇배경이 있고, 그 역사적인 흐름을 토대로 성립된 경제철학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책을 전혀 다르게 내놓는 바탕이 된다. 과거에는 이런 차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딱히 논의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주제가 전혀 아니었지만, 유럽이 하나의 국가처럼 통합되고 화폐가 통일되면서 이제 이 차이는 더 이상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세 저자는 현재 유럽이 직면한 경제위기가 총체적인 협력은커녕 개별국가간 대립으로 번진 이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배경에 놓인 핵심적인 갈등 즉 규칙과 자유재량, 책임과 연대, 상황 능력과 유동성, 긴축 정책과 활성화 정책 등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경제 분석과 역사적인 탐구를 절묘하게 결합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유럽의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 줄 길을 제시한 책이다.

<목차>

1. 머리말.

1부. 권력 변화,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

2. 권력 변화

3.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를 만든 역사적 배경

4. 독일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경제철학

2부. 화폐와 재정안정성: 마스트리히트의 유령

5. 규칙, 유동성, 신뢰도, 약속 (이하 생략 - 11장까지)

6. 책임 vs. 연대: 긴급구제 방지 조약과 재정 연합

7. 상황능력 vs. 유동성

8. 긴축 정책 vs. 활성화 정책

3부. 금융안정성: 마스트리히트의 양자

9. 금융 영역의 역할

10. 금융위기: 메커니즘과 관리 (이하 생략 - 총 4부, 1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커스 K. 브루너마이어(Markus K. Brunnermeier)는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 겸 동 대학 ‘벤드하임 금융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금융위기와 화폐정책에 관한 글을 여러 편 발표했다.

해롤드 제임스(Harold James)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역사와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다. 『Making the European Monetary Union』, 『Europe Reborn』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장 피에르 랑두(Jean-Pierre Landau)는 프랑스은행 부총재를 지내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파리정치대학에서 경제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HAPPINESS

가제 : 행복

저자 : Heather Harpham

출판사: Henry Holt and Company

발행일: 2017년 봄 이후

분량 : -

장르 : 회고록



★ 경매를 통해 수십 만 달러 규모로 미국 판권 계약 체결

★ 조디 피콜트의 소설 『마이 시스터스 키퍼 쌍둥이별(MY SISTER'S KEEPER)』를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는 스토리

★ 『숨결이 바람 될 때(BREATH BECOMES AIR)』처럼 시적인 문장 속에 인생의 지혜를 담은 에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부도, 건강도,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느껴지는 행복도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세상은 아름답다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과 그 행복을 무참히 짓밟는 순간은 번갈아 가며 우리를 찾아온다. 자유롭게 살다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기까지,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새 생명으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행복의 복합적인 얼굴을 마주한 저자는 깊은 감동이 담긴 자신의 삶을 이 책에서 가만히 되짚어본다. 현재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서 지나간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절대 객관적이지 않고 편향적인 기억을 꼬집어 내려고 노력한다.

최근 미국 판권이 경매를 통해 수십 만 달러 규모로 계약된 저자의 회고록은 카메론 디아즈가 주연을 맡아 영화로도 제작된 조디 피콜트의 소설 『마이 시스터스 키퍼 쌍둥이별(MY SISTER'S KEEPER)』에 담긴 이야기의 힘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혈병에 걸린 언니를 살리기 위해 태어난 아이, 태어난 직후부터 언니에게 제대혈과 백혈구, 줄기세포, 골수를 공여해 온 동생 안나의 이야기가 소설이 아닌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 저자의 딸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진단은 독자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그 소설 속 상황이 가져온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더불어 저자의 이야기는 신경외과 의사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생애 마지막 2년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 『숨결이 바람 될 때(BREATH BECOMES AIR)』처럼 시적인 문장 속에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 아이를 향한 부모의 뜨거운 열정 등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 빛을 발하는 사랑의 힘을 저자의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다.

남편 브라이언을 뉴욕에서 만났을 때, 저자는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고 글을 쓰는 자유로운 예술가였다. 브라이언은 그녀와 정반대로, 매일 똑같은 옷차림에 저녁마다 같은 식

당에서 밥을 먹는 일상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작가이자 교사인 브라이언은 안정적이고 고정된 생활을 선호했고 불필요한 일들은 굳이 하지 않았다. 자신과 너무 다른 상대방에게 깊은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예술가의 삶과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삶의 간극을 여실히 느끼게 했다.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저자는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고 부모 역할을 원치 않았던 브라이언과 결국 갈라선다. 고향에 돌아온 저자는 이별의 아픔과 모든 게 처음이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임신 기간을 홀로 견뎌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아이 그레이시는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뇌 손상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사망 위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는다. 혈액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 것이다. 브라이언에게도 출산 소식이 전해지고,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가 얇은 유리처럼 여전히 위태로운 와중에 저자는 그레이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형제로부터 골수를 이식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이 하나도 갑작스럽게 날게 되어 이별까지 했는데, 딸을 살리려면 아이를 또 낳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번 깨져버린 관계에 이 일방적인 통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두 사람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지옥의 축소판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최대한 멀쩡한 정신으로 견뎌내기 위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행복’이라는 표적을 찾으려 나선다. 굴곡 많은 이들의 삶은 아직도 미완성이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되지만 진정한 사랑이 가져오는 결실과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감동을 오롯이 담고 있다.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이 총 81장과 맺음말로 구성된다.

<저자 소개>

헤더 햅팜(Heather Harpham)은 작가이자 교사, 동작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배우로 활동 중이다. 직접 쓴 솔로 연극 여섯 편 중에서 최근 작품인 <Happiness>와 <BURNING>은 미국 전역에서 공연이 열렸고 네팔 카트만두에서도 공연이 이어졌다. 새라 로랜스 칼리지 연극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제목: EDUCATION TO BETTER THEIR WORLD

가제: 미래를 밝혀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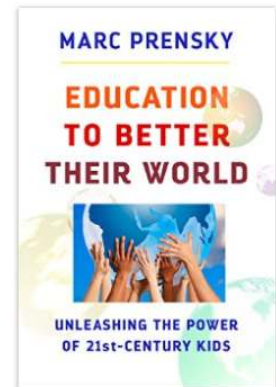
저자: Marc Prensky

출판사: Teachers College Press

발행일: 2016년 9월 26일

분량: 144 페이지

장르: 교육



- * 저명한 교육자이자 미래학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의 미래,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
- * “교육 개혁 분야에서 가장 현명한 인물로 꼽히는 저자가 제시한 학교 교육의 청사진은 명쾌하고, 공감이가고 긍정적이고, 현실적이다.” – 애리조나 대학교 교수 제임스 폴 지
- *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저자는 이 책에서 교육의 미래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음을 일깨우고, 직접 그 미래의 일부분이 되도록 독려하고, 학생이 변화의 동력임을 상기시킨다” – 토론토 대학교 교수,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의 저자 마이클 풀란

학문을 우선시하는 교육 방식이 전 세계에 확산된 후부터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도록 열심히 구축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정책 방향이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때때로 교육제도를 개편하기도 하지만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어떨까? 일관된 형식의 교육, 수학과 국어, 과학, 사회와 같은 과목들이 조합된 형태의 현행 교육방식은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진 아이들이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이끌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미래로 갈수록 더욱 벌어질 것이다. 그저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자율성과 인생의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알려진 교육자이자 미래학자인 저자는 세상을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를 내걸고 기존의 교육계가 생각해온 것과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 현재의 교육 방식으로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저자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을 대폭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히 소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학습이 교육의 최종 목표가 아닌 교육의 수단이 되는 방식, 틀에 박힌 지식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벗어나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는 ‘실습’으로서 교육, 개개인의 열정을 심분 활용한 ‘열정 응용’ 방식의 교육 등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과 함께 현대사회와 미래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모두 담긴 광범위한 교육계획과 어른들의 우려와 달리 아이들의 교육에 큰 발판이 될 최신 기술과 그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또 교사의 역할이 왜,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거스를 수 없는 그 흐름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정치인, 일반 시민 모두가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개선, 발전을 위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부분도 제안한다. “교육개혁을 가장 현명하게 해 내는 교육자”,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현재 급속한 변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각급 학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긍정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들로 명쾌하게 제시한 교육 지침서다. 이미 시작된 미래에 학생과 교사가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과 교육의 모든 측면을 조정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자 원동력인 학생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법을 소개하고,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한번도 활용한 적 없는 방식으로 전 세계 교육의 미래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2. 세상에 던져진 과제
 3. 세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우리 아이들
 4. 세상을 발전시킬 실제 사업
 5. 위대한 교육 전통, ‘사고’와 ‘성취’의 재결합
 6.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교육
 7. 아이들이 이룰 수 있는 것
 8. 성취 vs. 완수
 9.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
 10. 새로운 교육에 보탬이 될 기술
 11.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
 12. 정말 변화가 일어날까?
 13. 사람들의 역할
- 결론: 교육은 쉬운 일이 아니다 – 새로운 비유법

<저자 소개>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는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K-12 전 학년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분야의 강연자이자 작가,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2001년에 ‘디지털 원시인’, ‘디지털 이민자’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새로운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 ‘Global Future Education Foundation and Institute’의 설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다. 『Digital Game-Based Learning』, 『Brain Gain: Technology and the Quest for Digital Wisdom』 등 일곱 권의 저서와 100여 편의 에세이를 발표했다.

제목 : SCREW WORK, BREAK FREE

가제 : 생각부터 깨워라

저자 : John Williams

출판사: Vermilion

발행일: 2016년 8월 4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20일 안에 머릿속에 잠자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신기한 기술
- ★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등 최근 각광받는 새로운 사업의 뿌리가 된 ‘아이디어 키우기’ 전략
- ★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의 시대가 열렸다. 역사적으로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0여 년간 크게 달라진 것은 바로 태어난 지 겨우 9,000일 정도 된, 월드와이드웹 덕분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전 세계 사람들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생긴 것이다. 머릿속에 떠올린 기막힌 아이디어를 그저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일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셈이다. 이렇게 훌륭한 명석이 깔린 마당에, 왜 아직도 우리는 주저할까? 무엇이 발목을 잡을까? 저자는 절대 게으르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훈련’된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걸음마를 땔 때부터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설득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뇌가 된 것이다. 안정적인 삶을 최종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보장된 길로만 가는 것. 남들이 다 하는 범위 내에서 평범한 일을 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가 없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바로 그런 해묵은 생각들을 모조리 집어 던지고 스스로를 옥죄어 보이지 않는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익성 좋은 회사를 차리는 일이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일이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일이든, 30일 안에 꿈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준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힘들게 모아 놓은 은행 잔고를 탈탈 털고 빚을 내야 하는 위험한 길을 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어떤 꿈이든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신기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책의 제목이 된 ‘집어 치우라’는 말은 당장 하던 일을 때려 치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이 인생의 아까운 시간만 잡아먹는 생각을 집어 치우라는 뜻이다. 현재 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분명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꼭 빠져서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장 즐기는 사람만이 떠올릴 수 있는 기막힌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도전을 해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아이디어를 잘게 쪼개라”고 제안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할 때 사무실부터 얻고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회사 로고를 디자인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말고, 이미 마련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이 가장 재미있다고 느끼는 사업의 핵심, '일'부터 하라는 것이다.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아빠들을 위한 사업을 떠올렸다면 먼저 각종 소셜 사이트에서 커뮤니티부터 만들어 호응을 분석할 수 있다. 집을 말끔히 치워주는 정리정돈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이웃이나 친구 집에서 밥 한끼 얻어 먹는 정도로 일을 해주고 자신의 실력과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 아이디어를 잘게 쪼개고, 작은 일부터 반복해서 해보고, 시험하고, 수정하고, 다시 해보는 과정을 이어가다 보면 '눈덩이처럼' 일이 알아서 굴러가는 단계가 찾아온다. 저자는 스스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30일간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과정을 이 책에서 상세히 안내한다.

<목차>

머리말

끝내주는 아이디어 쪼개기 코스

코스 1. 기록적인 시간 안에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보자

코스 2. 괜찮은 아이디어 고르기

코스 3. 아이디어 연금술

1주차. 출발!

2주차. 좀 더 깊숙이 파고들기

3주차. 문제 해결

4주차. 아이디어의 본격적인 출발

사업 개시 준비

<저자 소개>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는 소프트웨어와 방송 자동화 기술 등을 개발하는 개발자로 일하다가 유럽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담당하는 최고기술책임자를 맡았다. 이후 세계 4대 회계법인의 하나인 딜로이트(Deloitte)에서 미디어 기술 컨설턴트 팀을 이끌었다. 현재는 '아이디어 랩(The Ideas Lab)'을 설립하고 컨설팅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Screw Work Let's Play』가 있다.

제목 : PEOPLE OF THE SECOND CHANCE

가제 : 또 한 번의 기회: 삶을 되살리는 사랑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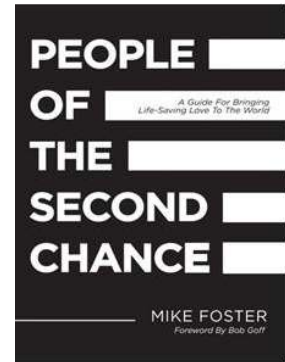
저자 : Mike Foster

출판사: WaterBrook

발행일: 2016년 9월 20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후회와 수치심에 찌든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 15년간 영적 지도자로 활약해온 저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마음의 자유를 되찾는 법**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 못하는 후회와 자책 때문에 스스로가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한 수치스러운 일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먼지만도 못하다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다. 중독될 걸 뻔히 알면서도 진통제를 삼키고 병을 키운 것,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 받은 일, 남도 아닌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일, 아이가 타고 있는 차를 술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일, 아이 대신 사회생활을 택한 일 등 인생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과 마주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채 벌어진 일이다. 우리가 직접 택한 길이다. 후회가 몰려 올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어진 결과에 온 정신을 압도당한다. 객관적인 사고 능력이 마치 바이러스라도 감염된 것 마냥 마비되어 버리고 슬픔과 좌절, 후회의 나락으로 추락한다. 이제 두 번 다시 되돌릴 기회는 없다고, 이 최악의 사태는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으니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남은 삶,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한탄한다. 직접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저자는 15년간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의 늪에 빠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새로운 기회, 삶을 다시 바로 세우고 나아가갈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며, 그것이 인간을 만든 신의 뜻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저자의 목표이고 이 책의 목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 또 한 번의 출발은 희망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완벽은커녕 인생이 다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한 시련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삶을 새롭게,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한다. 자기 비판,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지레짐작에 빠져 있다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미래가 더 멀리 다가날 뿐이다. 이에 저자는 불안한 마음과 수치심, 주관적인 판단을 접고 스스로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 것을 권한다. 도전과 용기가 모두 필요한 이 싸움은 잃어버린 것을 무작정 버리고 망각하려고 애쓰는 대신 왜, 어떻게 해서 잃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같은 원리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끈다.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도 고민하게 한다. 이 방대한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이 책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새로 주어

진 기회에 담긴 강력한 희망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안내한다. 인식과 발견, 소유 의식, 용서, 수용, 자유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불완전하다고만 느꼈던 삶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바꾸어놓는다. 깊은 상처와 결점, 실패한 일들을 직시하고 부끄럽기만 했던 그 요소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희망을 키우는 길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목차>

머리말. 3초

1장. 녹색 코트

2장. 집으로

3장. 죽은 자의 파티

4장. 지나온 삶을 용기 있게 대면하라

5장. 꼭 안고,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라

6장. 뒤죽박죽 여러 곡이 담긴 테이프는 이제 바꿔라

7장. 51가지 나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라

8장. 마음의 짐을 털어라

9장. 수치심에서 벗어나라

10장. 주어진 사랑을 받아들여라

11장. 두려움을 버려라

12장. 흑역사를 배경으로

결론. 새로운 결말.

<저자 소개>

마이크 포스터(Mike Foster)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픈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단체 '피플 오브 더 세컨드 찬스(People of the Second Chance)'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고 있다. 목사 겸 영적 지도자로 15년간 활약하며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2001년에는 XXXchurch.com을 공동 설립하여 신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정신적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면서 굿모닝 아메리카, 뉴욕타임스, GQ 매거진 등 여러 방송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자가 출판한 저서 『Freeway: A Not-So-Perfect Guide to Freedom』은 10만 부 이상 판매됐다.